



행복한 아이들의 성장 레시피

▶ 발행인 : 교장 오 향 주
▶ 주 관 : 교감 조 민 숙
▶ 편집인 : 교사 이 미 화
▶ 펴낸곳 : 행 안 초 등 학 교

• 579-830 전북 부안군 행안면 월륜길 18 • 연구실 584-1205 • <http://www.ha.es.kr>

2015년 제 4호

발행일 2015. 6. 30.(화)

집단 테라플레이(Theraplay) 활동으로 키(Kid)득 키(Key)득 예쁘고 고운 1학년



6월에는 1학년 친구들 간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통하여 친밀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즐겁고 재미있는 집단 테라플레이(Theraplay)를 통하여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하였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여라 놀이'를 재구성하여 5명씩 모둠을 이루어 호키포키 춤을 즐겁게 배웠다. 또, 수학과 교육과정의 넓이를 비교하는 방법과 연계하여, 모둠별로 신문지를 한 장씩 준 후, 모듬원 전체의 발이 신문지 안에 있을 때, 이기는 놀이를 했다. 자연스럽게 친구와 협동하고,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통합교과의 '해야 해야 나오너라' 노래를 배운 후, ○○(친구의 이름)야 나오너라 놀이로 바꾸어 함께 활동했다. 처음에는 학급을 두개 팀으로 나누고, ○○(친구의 이름)야 나오너라 노래를 손을 잡고 부른 후에 가위바위보를 한 후, 친구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한 팀이 되어 손을 잡을 때까지 계속 되었다. 마지막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던 1학년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밖에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나만의 여름 부채 만들기,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O.X 퀴즈,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말판놀이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라는 키(Key)를 통하여, 매일 매일 키득 키득 행복한 1학년은 예쁘고, 곧게 성장하고 있다.

아름답고 소중한 그 이름, 가족

함께 살아가며 성장하는 2학년 학생들에게 5월에 이어 6월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한 달이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써 보는 활동에 이어 6월에는 친척을 부르는 말 알아보기, 친척 명함 만들기, 손가락 인형 만들기, 가족 및 친척과 함께 했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떠올리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가족 역할 달리기, 가족 역할 놀이 활동을 하였다.

또한 우리 가족의 문화를 넘어서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문화를 알아보는 기회도 가졌다. 다른 나라의 인사말, 의상, 음식을 알아보고 만들어 보았다. 지구촌은 하나라는 노래를 실로폰으로 연주해 보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2학년 귀염둥이 학생들은 가족 및 친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해 보며 우리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 부안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3학년 워크북 활동

드디어 '우리 고장 부안을 소개합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활동시간이 되었다. 무려 2달에 걸친 프로젝트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활동이니 만큼 3학년 학생들의 열기 또한 대단하였다. 먼저 개인별, 모듬별로 소개하고자 하는 부안의 모습을 선정하였다. 열띤 회의 끝에 부안의 역사, 특징, 중심지, 지도, 감상문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정하였고, 자료 조사를 위해 매일 한 시간씩 시간을 투자하여 컴퓨터실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의 개인별 피드백을 거치고 반복된 수정을 통하여 최종 원고 자료를 완성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워크북 제작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창의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워크북을 제작하였고, 선생님의 최종 제본작업을 통해 워크북이 완성되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노력의 결과물인 워크북을 보자마자 학생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 부안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한 학생의 말을 뒤로하며 '우리 고장 부안을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활동은 마무리 되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나, 내 마음에 속 드는 너(4학년)

6월, 우리 4학년은 '나'라는 하나의 주제로 교과 수업(수학, 국어)도 하고 '행복한 청소부' 독서 활동 그리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돌아보는 심성놀이를 했다. '나'의 외면과 내면을 모두 돌아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어린이, 더 나아가 나의 소중한만큼 타인의 소중함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바른 인성을 토대로 한 지식 쌓기 프로젝트이다. 총 12가지 활동(자기소개딱지, 자기 얼굴 들여다보고 참혹으로 빚어보기, 행복한 청소부 독서 활동, 이름댄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칭찬의 주인공 찾기, Happy Things(4학년의 행복한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성실계획표, 나를 위한 선물, '나'와 관련된 시 바꿔 쓰기)을 하면서 뛰어다 보고, 차분히 고민도 해보고, 친구의 기쁨과 상처를 공유하며 함께 웃고 울며 나의 상처와 친구의 상처를 함께 안아주는 따뜻한 시간들이었다.

"안녕, 나의 몸아. 반가워. 내가 처음으로 나의 몸에게 편지를 쓰는 데 내가 너를 내게 가장 소중한 best 1로 정했는지 알아? 너는 소중한고 사랑스럽거든. 내게 소중한 가족들과 인형, 친구들 모든 걸 포기하고 널 1등으로 정했어. 슬프지만 뿌듯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냈잖아. 지금까지는 난 나의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 「꽃보다 아름다운 나」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몸 곳곳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 고맙고 사랑해. 행복하렴." - 4학년 노지수



5학년 문화유산 학급동아리 작품 전시& 체육시간이 최고예요!

5학년 '문화유산' 학급동아리는 지난 5월부터 박정숙 선생님을 모시고 완판본에 대해 학습 및 탐구, 체험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6월에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모형을 직접 제작하며 자료 조사, 간단한 안내판 등을 만들어 복도에 전시하였다. 전시를 통해 스스로 우리가 했다는 뿌듯함을 갖게 되었고,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 ★ 문화유산은 우리에게 (역사)이다.-도연
- ★ 문화유산은 우리에게 (친구)이다.-수아

더위에 지치고 땀나는 것을 싫어 할만도 하지만 5학년 우리 반은 역시 체육시간을 최고로 생각한다. 그 뒤에는 우리학교 밋쟁이 김기영 스포츠강사님이 계신다. 체육 시간마다 항상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도전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고 운영해주신다.

특히 다양한 줄넘기 운동과 피구게임. 옆에서 지켜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공에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넘어지면 싫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이들 얼굴에는 항상 웃음과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식을 다루는 즐거움! 6학년의 시뮬레이션 수업

6학년에선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주제로 한 주 동안 시뮬레이션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모습들을 나누고 '자유'와 '경쟁'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경제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지 배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직접 기업을 세우고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시뮬레이션 활동에 참여했다. 디자인 회사, IT기업, 의류 회사가 설립되고 제품 아이디어 회의가 이어졌다. 제품의 가격과 디자인, 기능에 대한 논의 끝에 제품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우리 아이들은 한 주 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겨 보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어 제품을 구매해보며 경쟁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지식을 직접 다루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경쟁'만 있는 세상이 아닌 '경쟁력'있는 세상일길 기대한다.

